

이번 행사에 영국에서도 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선교해서 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선교해야지 그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원래가 선교나 어떤 무역이나 다 본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들이고 만들기 달렸습니다.

그렇게 안 만들면 안 됩니다. 월명동 보십시오. 선생님 고향도 만들기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땅 파놓으니까 연못이 되었고 돌도 쌓으니까 돌 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들 때 안 만들어놓고 다시 만들려면 힘듭니다. 마당에다 연못 만들어놨는데 다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렇게 알고 후손까지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크고 나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영국지도자들끼리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십시오. 한국 사람은 외국 나가면 진짜 잘 안 만납니다. 서로 뻔히 알기 때문에 잘 안 만납니다.

내가 영국을 돌아다녀와서 아는데 물가가 진짜 비싼 곳입니다. 내가 햄버거 살 때 최고 비쌀 때는 한국 돈으로 3만원까지도 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내가 참 힘들었던 나라였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결국 영국에서 우리 애들이 전도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영국의 추위는 진짜 뼈가 어는 추위입니다. 별로 안 추운데 뼈가 얹니다. 아주 속을 파고드는 추위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대영국가라는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서 6개월 동안 한 명 만나서 가까이 하기 힘들었습니다. 해외는 유능한 자들이 나가야 말이 통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첫째는 말이 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서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로 나간 것입니다. 내가 안 나가면 답답해서 안 됩니다. 월명동 개발해 놓고 해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에라 내가 나간다.’ 하면서 99년도에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밀어 붙이니까 결국 되었습니다.

아시아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유럽쪽은 직접 가야 됩니다. 지도자가 뛰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월명동 안내하는 사람들 조은소리에서 보았습니다. 사진 실린 것 보고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조은소리를 몇 번씩 계속 보니까 자꾸 글을 쓰도록 하십시오.

안내 할 때도 안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 방법을 내가 계속 글로 간단하게 쓰니까 책자를 보여주면서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대둔산은 한 번 두 번 갔다 오면 오래 있다가 가는데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대둔산은 올라가기 힘들지만 여기는 그냥 쉽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보고, 또 자유롭게 있다가 가고, 평지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잘해주고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조용하고 좋으니까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잘 안내를 해줘서 신앙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전도도 받고 월명동도 자유롭게 쓰고 하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대신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엘리트와 이런 사람들 까지도 안내 데스크에서 잘 지도해주고 불편한 것 있으면 교단으로 올려서 지원받도록 하십시오. 안내하는 사람들 모자라면 교단에서 지원받아서 더 뽑도록 하십시오. 남자 안내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안내하려면 여자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내는 앉아서 표지판에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쫓아다니면서 안내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이 걸어 다녀야합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은 회원들 잘 해주십시오. 승무원 하던 회원도 내가 관리를 해서 지금 나옵니다. 승무원 그만두고 말씀 다시 듣고 대학교 다닌다고 합니다. 사람은 잘 해주면 무조건 잘해 줘야합니다. 못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잘 해줘야 합니다. 부모처럼 잘 해주고 무조건 잘 해줘야 합니다. 짐승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짐승은 잘 해주면 잘 따라다니니까요. 그런데 사람으로 보면 실패합니다. 왜 짐승으로 보라고 하느냐면 나쁜 것이 아니라 짐승은 말이 안 통하니까 계속 잘 해주지 않습니까? 잘 해주는 대로 통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해주면 그게 무조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하고 한두 번 서운하게 해주면 ‘두고 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잘 해주면 잘 따릅니다.

기도할 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짐승취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만물한테는 잘 해주면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해주면 그 만큼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벤쿠버 회원들 잘 지냅니까? 잘 지내고 열심히 살아야합니다. 외국 회원들은 자꾸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월명동만 있지 말고 서울도 가고 제주도로 관광도 가고 하십시오.

내가 아주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한국 교인들을 통해서 계속 관광지를 만들 것입니다.

하면 됩니다. 금년도도 꽤 많이 옵니다. 비행기로 한 10대 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면 비행기로 40-50대씩 날아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으니 내 고향 만들듯이 한국에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의학부들은 의학으로 회원들 치료해주고 나는 기도로 밀어줄 것입니다.

내가 천사 옷을 많이 봐서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이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고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섭리에 디자이너도 많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잘 하도록 하십시오. 홍대 나온 회원들 그림 잘 그립니다. 그러니 잘 대해주고 내가 구상을 많이 주려고 많이 만들어왔으니 화가들이 계속 잘 그리도록 하십시오.